

호주 5월 관광시장 동향조사

□ 호주 관광시장 주요 동향

○ 호주 아웃바운드 수요는 견조하나, 목적지는 미국보다 아시아로 이동

- ATIA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인의 연간 해외여행은 1,260만 건 이상으로 6.2% 증가한 반면, 미국행은 연간 4.8% 감소했고 베트남(+16.1%), 중국(+15.9%), 일본(+15.6%) 등 아시아 주요 목적지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함. 최근 호주 시장은 장거리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시간이 짧고 체류 효율이 높은 아시아권 선호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됨. 이에 방한관광 인지도 제고 및 경쟁국 대비 차별화된 K-콘텐츠 기반 마케팅 강화 필요.

○ 5월에는 연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이벤트가 도시 관광 수요를 보완

- NSW는 4월 27일 추가 공휴일 이후 6월 8일 King's Birthday 전까지 5월 공휴일이 없고, 학교도 Term 2(4.22~7.3) 기간이어서 5월은 전형적인 비연휴·학기 중 수요 구간에 해당함. 이런 환경에서 5월 관광시장에서는 캘린더 효과보다 Vivid Sydney(5.22~6.13), NRL Magic Round(5.15~17) 같은 대형 이벤트가 도시 숙박·외식·리테일 수요를 보완하는 구조가 두드러짐.
- 올해는 밤 시간대의 야간 조명 3D 프로젝션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 체험, 포럼, 푸드 이벤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 특징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Lighting of the Sails'를 비롯해 달링 하버의 드론 쇼, 탬벌롱 나이트의 무료 콘서트 등이 풍성하게 구성되었으며, 미츠키(Mitski), 모과이(Mogwai)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예고되어 전 세계 관광객들의 유입을 끌어올리고 있음. 80% 이상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어 고물가 시대 가성비를 추구하는 가족 단위 및 밀레니얼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목적지로 각인되고 있음.

○ 입국 수요는 회복세를 유지하나, 하반기 선행 예약 심리는 다소 약화

- ABS에 따르면 2026년 3월 호주 단기 방문객 입국은 818,9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고, 시드니공항의 Q1 국제여객도 457만 명으로 5.8% 증가해 국제 이동 수요 자체는 견조함. 다만 ATEC 업계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64%가 7월 이후 수요 둔화를 예상했고, 56%는 예약 주저, 65%는 연료 가격·공급 불안을 주요 리스크로 꼽아, 5월 시장은 현재 수요와 향후 예약심리가 엇갈리는 국면으로 보임.

○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여행 소비를 더 ‘가치 중심’으로 전환**

- RBA는 5월 5일 기준금리를 4.35%로 25bp 인상했고, ABS의 3월 CPI는 4.6%로 전월 3.7%에서 상승했으며, 항목별로는 교통 8.9%, 주거 6.5%가 물가 상승을 견인함. 이에 따라 5월 호주 관광시장은 여행 의향 자체보다는 항공권 특가, 취소 유연성, 단거리 노선, 체류 효율성 등 가성비 중심 소비가 더 강화되는 모습임.

○ **항공·관광업계는 국제 네트워크 확대와 세일즈 강화에 집중**

- 5월 중 Adelaide에서는 호주 최대 관광 트레이드 행사인 ATE26(5.10~14) 가 열려, 32개국 730명의 바이어·여행사, 1,400명의 호주 업계 관계자, 700여 개 관광조직이 참가함. 이는 호주 관광업계가 단기 소비 둔화 우려 속에서도 국제 유통망 확대와 인바운드 세일즈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줌. 한편 시드니공항은 1분기 국제여객 호조를 바탕으로 국제선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어, 5월 시장은 공급 확대와 판매 강화가 병행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음.

○ **크루즈는 완전 비수기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성수기 대비 존재감은 약화**

- Port Authority NSW의 5월 말 시드니항 스케줄상 Carnival Splendor 등 일부 크루즈 입항은 계속 확인되지만, 4월 이스터·가을방학이 지난 뒤에는 크루즈가 월간 수요를 견인하는 주된 축이라기보다 보조 수요로 작용하는 모습임. 이에 따라 5월 시장은 크루즈보다는 항공·도시 이벤트·단거리 해외여행 선호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구조로 해석됨.

출처:

<https://www.abs.gov.au/statistics/industry/tourism-and-transport/overseas-arrivals-and-departures-australia/mar-2026>

<https://www.virginaustralia.com/au/en/destinations/sydney/vivid-sydney-guide/>

<https://www.sydneyairport.com.au/corporate/media/corporate-newsroom/sydney-airport-traffic-and-operational-performance-q1-2026>

<https://www.rba.gov.au/media-releases/2026/mr-26-12.html>

<https://premier.sa.gov.au/media-releases/news-items/international-travel-buyers-flock-to-adelaide-for-biggest-ever-tourism-tradeshaw>

<https://www.trademinister.gov.au/minister/don-farrell/media-release/strong-support-46th-australia-tourism-exchange-adelaide>

<https://www.portauthoritynsw.com.au/cruise/sydney-harbour/sydney-harbour-cruise-schedule>